

1968년도 제 2차 지방대회 소식

중앙 지방부

연 천여 회원의 운집 속에 이루어진 중앙 지방부 대회는 중앙 지방부로서의 두 번째 모임다운 짜임새 속에 이루어졌다.

18일 전체 역원회로서 시작된 지방대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역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자는 주제말에 모였고, 6시 신권회와 상호 부조회가 벽 하나를 격해놓고 부르는 찬송은, 서로의 신앙을 북돋아 주는 용기 같은 것을 느끼게 했다.

선교부장의 감리하에 지방부장 제2보좌인 민 경욱 형제가 사회한 신권회는 “의의일 선택하여 생활할 때 성령이 너들 인도 할 것”이라는 말의 우리의 할 일을 일깨우는 8장 찬송으로 시작되었다. 말씀으로는 1960년도에 한국에서의 선교들 마치고 귀환했던 캠블 형제에 이어, 1966년도에 귀환했던, 역시 군인인 돌프 형제의 지혜의 말씀을 들었다.

이어서 선교부장 제 2보좌인 부르거 형제의 “심장과 혀와 전문의사로서의 지혜의 말씀”이 있었다. 그는 “해(害)가 따르다고 해서 지혜의 말씀이 지켜질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면서, 특히 130년 전에 해독이 있다고 금해왔던 담배가 이제서야 그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차차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껍연자의 암 발생율이 높다면서, 암은 발견 되었을 때가 9년된 것이며, 90일에 암은 배로 자란다고 설명하면서, 미국의 경우 4%의 일반의사가 금연을 했으며, 90%의 흉곽외과 의사가 금연했음을 상기 시켰다. 그는 담배의 독은 1개피가 18분의 목숨을 단축시킨다고 말하면서, 영이 거하는 집을 해치는 일은 이만 저만한 잘못이 아니라면서 담배를 금해야 함을 강조했다.

19일 10시부터 있었던 제 1총회는, 지방부장 차 중환 형제의 사회로 “아름다운 시온 위에서” 한 형제가 될 것을 찬미하는 찬송으로 시작 되었다. 500여 서울 성도들은 서부 지부의 강 온구 형제와 신촌지부의 이 해동 형제, 동대문 지부의 손 승은 형제가 장로 신권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지지했으며, 지방부 주일학교 감독에 귀환 선교사 이 정현 형제를, 유년부장에 박 찬주 자매를, 건축담당 평의원에 김 상호 형제를 각각 지지했다.

말씀으로는 선교부장 제2보조 스날 장로, 대전 선교사 넬슨 장로, 선교부장 부인 팔마자매, 지방부장 제 1보좌 박 재암 형제의 말씀에 이어, 청운지부의 합창이 있었으며,

사진설명 : 위로부터 중앙지방부 대회의 전경. 대회를 끝내고 성도들을 찾아 그간의 안부를 물었다. 남부지방부 대회의 전경. 와그너형제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노래했다.



선교부장 제 1보좌 이 호남 형제의 말씀이 있었다.

이 호남 형제는 물몬교회가 자란 발자취를 열거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 하였다. 1965년에는 7개 지부와 지역이었던 것이, 17개 지부와 지역으로 발전했고, 두개의 지방부가 되었으며, 39명의 복음 선교사가 71명으로 늘었고, 3년간에 500여명이 침례 되었으며, 특히 가족단위로 발전되고 있는 회원증가는 큰 축복이라고 강조 하였다. 그는 십일조에 관한 보고에서 1965년보다 1966년에는 175%가 늘었으며, 1966년보다 1967년에 130%가 늘었음은 물몬에대한 제정적인 축복이 있었던 것과, 신앙의 발전이 크게 나타난 증거라고 발표 하였다.

“오늘 배운 모든 것 맘 속에 새겨서 잊지 않게 함소서”라고 찬송했던 성도들은 지방부 상호 부조회와 동부지부 상호 부조회가 준비한 점심을 든 후 2시부터 계속된 제 2총회에 참석 하였다.

박 재암 형제가 사회한 제 2총회는 주한 미군 지방부장의 부인 켄슨 자매, 지방부장 제 2보좌 민경옥 형제, 선교부 상향회 고문 요크 형제에 이어, 중앙 지방부장 차 종환 형제의 말씀이 있었다. 성신에 충만한 성도가 되자는 주제 아래 말씀한 차 지방부장은 “믿지않는 사람들은 종교가 비과학적이라고들 하는데, 비과학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고 과학을하는 사람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었다. 그는 “우리가 지식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조금씩 이해하고 남득해 나가는 것에 불과하며, 여왕벌의 미수정란이 숫벌이 된다는 것은 중학교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인데도, 처녀가 잉태 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 하였다. 이어서 이 정현, 김 성모 형제의 간증에 이어, 송죽원 합창단의 “주여 큰 폭풍우”와 “졸졸 흐르는 시냇물”의 합창이 있었고, 이번 대회가 마지막 기회가 되는 배 일문 선교부장의 말씀이 있었다. “이상적인 물몬”이란 주제로 말씀을 들은 서울의 연 친여 성도들은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을 찬송 했다.

남부 지방부

지역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연 칠백여 성도가 참석했던 남부 지방대회는 “봉사하자”는 주제 아래 동구지부에서 열렸었다.

5월 25일 오후 6시에 신권회와 상호부조회가 있었으며, 신권회에서는 부르거 형제님의 말씀이 있었다. 많은 감명을 준 이 모임이 끝난 후, 회원들은 질의를 통해서 암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었다.

26일 10시부터 열린 제 1총회에서 지방부 행사에 나선 배영천 지방부장은, 동구지부의 나병선 형제와 전주지역의 박주인 형제의 장로 신권에 대한 지지를 물었으며, 배 수열 형제와 박주인 형제를 평의원에 각각 임명했다.

이 호남 형제님은 5월 14일부로 인가되어 대관장단에서 선교부장님께 온 부산지부 건물 허락서를 인용해서 82, 53

6분의 이 건물을 기도하는 가운데 완공할 수 있도록 준비 하자고 했으며 이를 위해 서울 동부지부를 지었던 루스 형제님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배 지방부장님은 말씀에서 유명한 중국인 교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기의 조상들과 함께할 수 없는 종교는 갖을 수 없다”고 했던 1952년도 교회잡지의 기사를 예로 들어 우리의 사명은 말일에 더욱 크다는 것을 강조했었다. 테버나클 합창단원이었으며, 선교부장님과 함께 군목으로 복무한 바 있는 와그너 형제의 독창에 이어, 이 호남 형제의 말씀을 들었다. 그는 말씀에서 “아부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단순한 신앙은 말일에 사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제 2총회는 도 길희형제, 김 도필 자매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김 자매님은 1955년 광한리에서 자기가 침례를 받은 이후의 교회의 커감을 볼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간증을 굳게한다고 하셨다.

이어서 팔마 자매는 세계 어디를 가나 성신이 계시다는 것을 느낀다는 자기 간증과, 70명의 선교사가 3천만에게 전부 전도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우선 가족에게 선교사가 되자고 제창했었다.

와그너 형제의 졸졸 흐르는 시냇물의 독창에 이어 등단한 선교부장님은 “게으른 소년과 주인”이란 이야기로서 남에게 무엇을 주되, 관대하자고 말씀 했었다. “세상에는 즐겨 일하는 일꾼이 필요함”을 서로 다짐한 남부 지방대회는 2시 30분 모든 막을 내렸다.

선교부장 말씀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모두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해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제반 의식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 예수께서는 주어서 얻는 축복이 발버둥질해서 얻는 축복보다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예수께서는 만약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황폐하거나 황량한 것을 느끼거든 봉사하는 가운데 전념하라고 하셨습니다.
- 회원들이 낙망하거나 주름살을 짓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는것을 보면, 저는 그 사람은 얻는 것에만 급급했고 쓸 것을 게을리 했다는 것을 알게되며, 남에게 주는 생활을 통해서서는 아픔이라든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래로 한국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발전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눈에 될 만큼 축복과 발전을 가져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함께 기도할 때 더욱 발전되리라는 것의 의심치 않습니다.

제3대 한국 선교부장 임명

근착 교회 뉴스에 의하면 대관장단은 스펜서 제이. 팔마 선교부장의 뒤를 이어 제3대 한국 선교부장으로 프로보시 BYU 제7스태이크, 제15와드의 감독으로 있는 로버트 에이취. 스토버 형제를 임명하였다고 한다. 그는 최근 한국에 도착해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스토버 장로(광주)의 아버지로 그의 부인 로즈마리 우드 스토버 자매와 15세의 딸 쉐디와 12세의 아들 티모디와 함께 한국에 오게 된다.

최근 녹번지역에서 전도를 했던 스토버 장로는 모든 집안 식구가 한국에서 살게되어 기쁘다고 어쩔줄을 몰라했다. 선교부장님으로부터 맨 처음 소식을 듣고 믿지않았다고 했던 그는, 최근 아버지에게서도 그러한 편지를 받아 사실임을 확인 했다고 한다.

스토버 형제는 일반 행정학을 전공했으며, 하바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획득한 바 있다. 그는 1964년부터 BYU대학에서 정치학 교수로 있었는데, 이 직책을 맡기 전인 1942년 중위로 시작해서 1964년 대령으로 제대할 때까지 미 해군에서 복무해 왔었다.

그는 퇴역하기 전, 군단 공로상과 동성 무공훈장과 한국



은성 무공훈장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북극동 선교부장단 제1보좌를 역임했으며, 남부 독일 선교부 군인 지방부장, 카메치 파크 와드의 감독, 장로 정원희 회장, 그리고 2차대전시에는 독일과 영국에서 군인 모임의 지도자로 있었다. 그는 1939년 코로라도 덴버에서 칩제를 받으므로 개종했다.

스토버 형제는 초대 카 선교부장과 팔마 선교부장에 이은 세번째로서 8월 1일 한국에 도착하며, 한편 팔마선교부장은 8월 4일 이한 예정이다.



진리의 말씀 방송

K.B.S. 제2방송(600키로 싸이클)에서는 세계 165개 방송국에서 이미 인기 프로그램으로 방송되고 있는 테이프를 우리 교회로부터 제공 받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5분부터 30분까지 방송하고 있다. 지난 5월 4일부터 '노을의 전주곡' 시간에 방송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합창단인 교회 본부의 태버나클 합창단이 소개되며, 리차드 엘.에반스 사도의 진리의 말씀이 방송되는데, 우리말로는 지영달 형제가 수고해 주고 있다.

아론신권 대회

5월 11일 남부 지방부 주최의 아론신권 회복 기념 대회가 동구지부에서 있었다. 우천 관계로 야외의 모든 계획이 취소된 이날, 형제들은 웬싱 시범 경기와 이 호남 형제의 말씀을 들었다.

같은날 서울에서도 중앙 지방부 주최의 아론 신권 회복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교회 회원인 리차드 보비의 해설이 있는 권투 경기를 삼청동 그 도장에서 관람하기도 했다. 이날 선교부장님은 "말일의 신권 소유자의 책임"이란 말씀을 해주셨다.



중앙지방부 상향회 대회 개최

중앙 지방부 년차 상향회 대회가 5월 30일 선교부 강당에서 각 지부에서 일년간 준비한 순서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일년동안의 상향회 모임에서 배우고 가졌던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되었던 이날의 대회에서, 동대문 지부는 신 재구 연출, 출연의 방자전으로 1위에 입상 했다.